

명성교회 재심, 김하나 목사 '청빙무효' 판결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국장 강홍구 목사)이 재심 끝에 지난 5일,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명성교회가 지난 2017년 3월 19일 공동의회에서 청빙 결의를 한 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가진 재판국은 자정개회의를 끝내고, 취재진 앞에서 이를 발표했다. 재판국장 강홍구 목사는 "전원 합의"라고 전했다.

명성교회는 지난 2017년 3월 19일 공동의회에서 8,104명 중 찬성 6,003명(74.07%) 반대 1,964명 무효 137명으로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했다. 이후 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도 그해 10월 24일 파행 끝에 교회 측의 청빙 청원을 받아들였다.

이후 재판국이 지난해 13일 당시 노회에서 있었던 선거를 무효화하면서, 명성교회 청빙을 허락한 결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그해 제103회 총회는 재판국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빙 건에 대한 재심을 결의했다.

총회재판국 강홍구 목사는 이날 명성교회 청빙 결의 사건 재심 판결을 마치고 "서울동남노회 이용혁 목사 외 12인이 제기한 재심 청구,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



김삼환 원로목사가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게 안수기도하던 모습.

장 결의무효 확인의 소 재심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 총회재판국 2018년 판결을 취소한다. 2. 2017년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이뤄진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또 "이 사건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사건은 헌법 제28조 6항 1호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헌법 권징 편에 따라 재심인들의 청구를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취소하고 재판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명성교회가 소위 '세습' 할 것이라는 소문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지난 2015년 이전부터 교단(예장 통합)을 중심으로 공공연히 있어 왔다. 김하나 목사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도 이 무렵부터다.

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를 2015년 12월 27일 원로목사로 추대했지만, 바로 그의 후임을 청빙하지 못하고 임시당회장 체제를 유지했다. 그리고 약 1년 3개월이 지나, 당시 새노래명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 했다.

김하나 목사는 처음엔 명성교회

의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듯한 입장을 취했으나, 결국 새노래명성교회를 떠나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됐다.

이후 교계는 물론 사회에서도 교회 측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명성교회를 위시해 교단 안팎에서 "교인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견해가 나오기도 했지만, "교단 법을 어긴 부자(父子) 세습"이라는 저항이 워낙 거셌다.

이처럼 명성교회 청빙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배경에는 이른바 '세습 방지법'이라 불리는 '교단 헌법 제28조 6항 1호'가 있다. 자립대상(미자

립)교회가 아니라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임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명성교회가 공동의회에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결의한 후 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 역시 같은 해 10월 24일 정기노회에서 이를 허락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노회는 사실 상 찬반 양측으로 분열했고, 지금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한때 총회재판국도 명성교회 청빙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 결의를 인정(2018.8.7)했지만, 지난해 제103회 총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국으로 하여금 해당 건을 재심할 것을 결의했다. 교단 최고(最高)의 결 기구의 결정이었기에 '명성교회 청빙 무효'는 사실상 수순처럼 보였다.

김하나 목사는 지난 2017년 11월 12일 위임예식을 치르고 명성교회 위임목사로서 목회를 시작했다. 당시 이 예식에서 김 목사는 "세상과 교계의 우려를 공감한다. 그 세상의 소리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우리는 그 우려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해 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지난해 장신대 한 학생이 자신의 SNS에 올린 소위 '무지개 퍼포먼스' 게시물을 ©해당 학생 SNS 캡처

장신대 '동성애 옹호' 학생들 목사고시 합격 보류

예장 통합 고시위원회 실행 위원회가 6일, 16명의 위원을 이 모인 가운데 모임을 갖고, '동성애 옹호' 혐의를 받고 있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두 학생의 목사고시 합격을 보류하기로 했다.

고시위는 지난 6월 6일 고시를 치렀고, 당초 7월 2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 두 학생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었다.

통합 측이 지난해 제103회 정기총회에서 '동성애 행위자, 동성애 행위

를 조장하거나 교육하는 자는 교단 목사고시를 치르지 못하도록'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 문제를 다룬 '5인 위원회'가 구성됐다. 고시위원장 정병주 목사를 비롯해 총회동성애대책위원장인 고만호 목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논의 끝에 해당 학생들을 불합격 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을 정했다.

이날 고시위 실행위의 결정에도 이 같은 5인위의 입장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위는 오는 9월 6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합격자를 정해, 그달 23일부터 열리는 제104회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이 총회에서 결정된다. 김진영 기자

교수직, 안정적인 직업?
-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 도전하세요
매월 첫째주 토요일 개강
연방정부 한국어교사(CIA)
한국어 법정통역사, 번역사
주말반 토, 일 세미나
T:(213)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2018047569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제21회 정기총회

이민목회 현장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며 나아가 교회 연합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봉사해 주시는 미주 지역 모든 교회 협의회와 목사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래와 같이 제21차 정기총회를 소집하오니 각 교회 협의회 대표, 각 교단 대표와 공인된 선교단체 대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9년 8월 19일(월)~21일(수)

8월 19일(월) PM 6:30 오후 2시부터 등록 개회 예배	8월 20일(화) AM 10:30 제1세미나 : 통일 선교 전략 제2세미나 : 난민 선교 전략 제3세미나 : 21세기 영적전쟁 어떻게?	8월 21일(수) AM 9:00 취임식 및 공로패와 감사패 전달
--	--	---

장소 갈보리 새생명 교회
111 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문의 준비위원장 민승기 목사 T.(714)615-9191, johnsmin9191@gmail.com



준비위원장 민승기 목사



미주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n

대표 회장: 심평중 목사
준비위원장: 민승기 목사
사무 총장: 이재덕 목사



미주성서화운동본부 이성우 목사(좌)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이서 목사(우)

OC 교회협의회, 동성애 조장하는 ACR 99 반대서명운동 동참

엘에이를 중심으로 한 남가주 기독교 지도자들이 ACR 99 발의안 저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한다. 이어, 오렌지카운티에서도 ACR 99 발의안 저지를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오렌지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회(회장 이서 목사 이하 OC 교협)는 미주성서화운동본부 이성우 목사와 회의를 갖고, OC 교협에 소속된 400여 한인교회와 성도들도 ACR 99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할 것을 표명했다.

ACR 99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상담, 교육 전환 치료(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전환시키는 치료) 등의 활동을 금지하려는 발의안으로 상원에서 통과되면 모든 동성애 반대 운동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목회자가 예배나 상담 중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밝히지 못하게 된

다. 특히 목회자나 상담가 종교인 및 교육자들이 성경을 따라 '동성애는 죄, 또는 비정상 혹은 잘못'이라고 설교하거나, 설득하는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면 법적 제재를 받고, 목회자의 경우 감옥에 가거나 고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와 상담, 전환 치료 등을 금지하려는 발의안 ACR 99는 캘리포니아 주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데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명이 시급하다.

OC 교협 이서 회장은 "지금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기독교, 가정을 넘어 세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어려운 시대에 직면해 있다"며 "가정과 도덕성을 무너뜨리고 기독교 가치관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수 있

는 이런 법안은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기도하고 막을 수 있도록 서명하고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 회장은 "위기는 어려움이지만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캘리포니아 지역 교회와 성도, 기독교회연합회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과 뜻을 모아야 하겠다"고 했다.

OC 교협은 ACR 99의 심각성을 알리고,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서 부결시키기 위한 세미나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서 목사는 "OC 지역 모든 교회 성도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줄길 바라며,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일괄적으로 받아, 교회에서 반대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새 생명 얻은 박종호 장로, 더 깊고 진한 감동 무대 선사

춤추는 테너, 한국의 파바로티 등 다양한 수식어를 가진 CCM 가수 박종호 장로가 지난달 31일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선교사 후원을 위한 "초심" 콘서트를 개최했다.

간암 수술 후 건강을 다시 찾은 그는 예전보다 더욱 깊고 진한 울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 참석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날 박종호 성가사는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의 은혜' 등 자신의 히트곡들을 열창하며 다시 얻은 생명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늘로 올려 드렸다.

박종호 성가사는 암을 치료하던 때를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2016년 건강검진에서 '모든 간이 다 굳어서 고구마가 쪄그라든 것처럼 암 덩어리만 남아 있으며, 간을 절개하고 새로운 간을 이식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박 성가사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 일부를 잘라 이식한 자신의 막내 딸 박지윤 양을 언급하며 "누군가의 간이식으로만 살 수 있었던 내게 막

내 딸이 흔쾌히 간이식을 해주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 죽는 것이다. 12시간 배를 가르고 16시간 동안 봉합하는 수술을 해야 했다. 딸에게서 1KG의 간을 이식 받았다"라며 딸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중환자실에서 면회도 안 되는 무균실로 이동하게 됐다"는 박종호는 "두려움에 무균실에 들어가기 전 낱알이 기도제목을 전했고, 기도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며 "무균실 안에서 나를 위한 기도가 마치 내 몸을 만지는 것 같았다"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박 성가사는 "하나님이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곁에 계셨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간증했다.

한편 이날 집회 수익금과 헌금은 전액 투병 중인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의 수술비, 치료비, 건강검진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박종호 성가사 '초심(初心) 콘서트



제 10차 전인치유 힐링캠프

GIFT 새사람 전인치유 제 11차 힐링캠프가 오는 9월 14일(토)과 9

월 21일(토) 양일간 오전 8시 30분 부터 플러튼에 위치한 God's Fam-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만나는 시간, 변화와 회복, 성숙 경험한다

ily Church (6551 Western Ave. Buena Park)에서 개최된다.

힐링 캠프는 치유와 상담사역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달훈 의학 박사와 GIFT 전문 상담소와 상담치유연구원 원장인 리디아 전 임상심리학 박사가 진행한다.

강사로 나서는 전달훈 박사는 남가주 사랑의교회 장로로 MIT와 UCLA를 졸업하고 트리니티 칼리

지에서 관계심리학, 탈북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년 이상 의사로 일하고 있다. 리디아 전 박사는 USC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바이올라대학에서 임상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5년 이상 현장에서 상담 사역을 해오고 있다.

GIFT는 "힐링캠프를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변화와 회복, 성숙을 경

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치유와 상담 사역에 귀한 배움과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등록비는 250달러며 선교사, 목회자, 사역자 및 사모 등 교역자들은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정보와 등록은 웹사이트 giftheal.com 혹은 714-522-4438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여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남가주 제4회 초교파 청소년 연합수련회 7개 교단 19개 교회에서 115명 참가



제4회 남가주 청소년 연합수련회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청소년들

나성순복음국제음식기도원(원장 진유철 목사)은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제4회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개최했다.

“믿음에 굳게 서서”(Stand Firm in the Faith)라는 주제로 개최된 수련회는 남가주 지역 한인교계를 섬기는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여름 청소년 수련회를 열기 힘든 교회를 위해 매년 개최하는 남가주지역 교회 연합 청소년 수련회이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7개 교단 19개 교회에서 115명이 참가한 수련회는 예배 및 집회, 레크리에이션, 물

놀이(Drop Zone Water Park), 조별 발표 등으로 진행됐으며, LA 및 OC, 벤추라카운티를 비롯해 아리조나와 워싱턴 DC 등 타주에서도 참석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수련회 강사로 나선 데이빗 김 목사(버지니아 호프웰순복음교회 담임)는 성경 속의 여러 인물 가운데 특별히 ‘이민자’라 할 수 있는 요셉과 다니엘의 삶을 조명하며 이민교회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전했다. 수련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됐다. 교회에서 늘 드리는 예배와 달리 수련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린 좋은 경험이었다”등 수련회 가운데 받은 큰 은혜를 간증했다.

매년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위해 모든 비용을 후원하고 있는 나성순복음교회는 “연합 수련회를 통해 남가주 지역 차세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연합 수련회가 남가주 지역 차세대 부흥에 쓰임받길 원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 제33회 신인 등단 시상식



미주 크리스천 문인 협회 제33회 신인 등단 시상식

미주 크리스천 문인 협회(회장 정지운 목사)는 지난 7월 27일 로 텍스호텔에서 제33회 신인 등단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은 제1부 정지운 회장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 되었고, 정찬군 목사(예심장로교회)가 대표로 기도하고, 김숙영 사모가 특송을 부르고, 김재욱 목사(나성소망교회)가 설교 했다.

김 목사는 설교 본문을 마가복음 1장 14절-15절을 본문으로 [복음과 문학]이란 제목으로 설교 했으며, 송택규 목사(로렌드대학교 부총장)의 축도로 제1부 예배 순서를 마쳤다.

이어서 제2부 행사는 류민호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하면서 정지운 회장이 등단 인사말을 하고, 류 부회장의 사회로 최선호 목사(시인 평론가), 하정아(수필가), 김

상분(소설가)씨가 각각 심사 과정과 심사평을 하고 정권수 선교사와 방동섭 목사, 김복임(동양화가)씨가 작품 심사평을 하고, 김장진, 홍경애, 박미혜, 홍유리 씨가 시낭송을 하고, 이산하씨가 동시를 낭송하였다.

이어서 윤덕환 씨가 수필을 낭독하고 김용섭 장로가 특별 초청으로 ‘New Raise up’을 하모니카 연주를 해서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중창 순서로 조성건 외 5명이 등단 노래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수상자들이 등단하여 수상 소감을 피력하였고 김창호 목사(기독뉴스 LA 지사장)가 마침 기도와 점심 식사기도를 하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함께 ‘나의 살던 고향’을 합창하고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동욱 기자

라크마 여름 콘서트 유대인 커뮤니티와 ‘우정의 하모니’ 연주



LAKMA 윤임상 음악 감독과 LAJS 예술감독 노린 그린

라크마(LAKMA, Los Angeles Korean-American Musicians' Association 대표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는 오는 8월 17일(토) 오후 8시,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우정의 하모니”라는 주제로 2019 LAKMA 여름 콘서트를 개최한다.

한인 커뮤니티와 유대인 커뮤니티가 한데 어우러져 우정을 노래할 올해 콘서트는 라크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윤임상 지휘자와 로스앤젤레스 유대인 심포니 오케

스트라(Los Angeles Jewish Symphony (LAJS) 음악 감독 노린 그린과 함께 콜라보로 연주하게 된다.

윤임상 LAKMA 음악감독은 “우리 한인족과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매우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음악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화합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세대와 인종을 넘어 함께 평화를 노래하면서, 이 땅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소원하는 시간

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감독은 이어 “이번 연주회는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연주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남가주 한인 교민들께 자신 있게 초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유대인 심포니 예술감독 노린 그린은 “한인 커뮤니티와 우리의 우정을 확인하는 매우 특별한 자리를 갖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양 커뮤니티가 하나 되어 음악과 함께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음악감독 윤임상의 지휘로 연주될 음악회 서곡인 최성환 작곡의 “아리랑 판타지”는 지난 2008년 로린 마젤이 뉴욕 필하모니와 함께 북한에 가서 연주했던 곡으로, 한국의 전통 악기인 대금과 함께 연주되며 전북대학교 예대 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음악학과 교수로 있는 이화동 교수와 협연하게 된다. 특히 “아리랑 판타지”는 디즈니 홀에서 처음 연주되는 곡이다.

이날 노린 그린 예술 감독의 지휘로 연주될 교향곡 “This will be our reply”는 존 F. 케네디가 암살된 이후 레오나르드 번스타인이 남긴 말 “이 사건은 폭력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될 것입니다”를 계기로 레오나르드 번스타인의 제자인 루카스가 2018년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쓴 명곡으로 온 세계가 염원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어서 지난해 3.1절을 기념해 만들어져 국립합창단이 초연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칸타타 한국의 혼(Spirit of Korea)이 미주에서 처음 연주될 예정이다. 한국의 혼은 한민족 안에 담긴 흥취와 애환, 고비마다 역경을 이겨낸 험한 맥박과 기

백, 그리고 희망을 노래한 작품으로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상여소리 등 토속적인 우리 민요와 가락을 모티브로 쓰여졌다. 전통 모듬북과 대금이 연주되며, 전주 대사놀음이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장원을 하고,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한국의 소리꾼 김남영이 남도 국악 창외의 진수를 선보인다.

마지막 무대는 베토벤의 9번 교향곡 중 4악장 “Ode to Joy”를 라크마 합창단과 유대인 합창단이 함께하며 독창자들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소프라노 이지은, 테너 오위영,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는 메조 Diana Tas, 베이스 Ron Li Paz가 한민족과 유대 민족, 그리고 다민족이 하나인 아래서 하나임을 확인하며 우정을 나누는 노래로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한편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2010년 결성된 라크마(LAKMA)는 지난 9년 동안 매해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다양한 주제로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해 왔으며, 창단 이후 매해 장학사업을 펼쳐 클래식 음악과 사회에 큰 기여를 해왔다.

김동욱 기자
음악회 티켓 문의 (310)279-8184
이메일 문의 lakmainfo@gmail.com

The Concert in Celebration for the 74th Anniversary of Independence Day of Korea

광복 74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음악회

조국의 광복 74주년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어려운 조국의 상황을 돌아보며 함께 뜻을 모아 기도하고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광복 74주년 기념예배 및 음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 권영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한기형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권영신 장로 대한민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	최경환 목사 시온성결교회 담임목사	이경호 목사 한아름 합창단 지휘자	노혜숙 에버그린여성 합창단 지휘자	이준실 Tenor Solo	김은혜 Soprano Solo

2019. 8. 11 (주일) 오후 4시

시온성결교회
2149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최 : 대한민국민회 기념재단,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한아름 합창단 에버그린여성합창단 남가주 장로 중창단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23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필자는 지난 십여 년간 두란노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섬기고 있다. 때론 감사로 때론 스텝으로 지역의 아버지들을 섬기면서 가정들의 회복과 더 나아가 교회의 회복을 꿈꾸며 봉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따로 없었다. 일반 평신도들의 아버지학교만 개설되었는데 차차 목회자 아버지학교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엘에이는 어느덧 14기가 되었다. 그러던 중 시애틀 목회자 아버지학교 1기가 형제교회에서 열리게 되었다. 시애틀에도 목회자들의 아버지학교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몇 분의 목회자들이 시애틀 개척의 뜻을 갖고 엘에이 13기에 와서 봉사하면서 섬김의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돌아가서 곧바로 그 꿈을 이룬 것이다. 이에 엘에이 목회자 스텝들이 조장팀과 관리팀으로 지원하여 시애틀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돕는다.

그 준비하고 돕는 과정들이 참 아름답다.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 사랑과 평강으로 굳건하게 회복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 아버지들이 모였다. 과거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참 많은 가정의 아버지들이 잘못된 아버지의 영향력을 그대로 전수받아 다시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며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자식들에게 주고 있었다. 그런 아버지들의 오래된 깊은 쓴 뿌리들을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주제 하에 첫 번째 만남을 가지면서 강의와 조별 워크숍을 통해 그것들을 토쳐 내기 시작한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큰 상처와 양금들을 이해와 용서를 통해서 회복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만남은 아버지의 남성이다. 잡자고 있었던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선한 리더십들을 찾아낸다.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아버지상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무엇이 진정한 아버지의 남성인가를 되찾아 간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은 상처를 주는 폭력의 손이 아니라 가정을 축복하는 울타리의 손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아버지들은 평평 눈물을 흘린다. 못났던 아버지상을 갈아엎고 싶은 마음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세 번째 만남의 주제는 아버지

의 영성이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가정의 축복권을 베푸는 신분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손길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그것이 속제다.

자녀와의 불화로 대화가 단절되었던 가정에 이 축복의 손길이 시작되면서 부자가 서로 꺼안고 서로 사과하며 사랑을 회복하는 가정의 간증을 들을 때면 보람이 크다. 가족의 불화의 요인이 자기에게부터 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아버지들이 차츰 아버지의 영성을 통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깨달아 가슴을 치며 오열한다.

마지막 네 번째 만남은 아버지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베필인 아내들에 대해 소홀했고, 폄하했고, 부부가 바로 세워지는 데에 자신이 얼마나 철없는 남편이었는지 모른다고 하며 아내의 발을 씻어 주며 '여보! 미안해' 하며 눈물을 떨구는 남편을 맡없이 꼬옥 안아주는 아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봉사하는 최고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렇게 우리 지역의 가정들 특히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는 목회자의 가정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회복해 가는 것이 아버지학교의 목적이자이다. 이런 선한 목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재정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아버지 동역자들이 함께 하는 것은 너무도 엄청난 행복이요 은혜이다. 아버지가 되는 데 훈련 받고 아버지 된 이가 없다. 그래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던 아버지들이 아버지학교를 통해 참된 아버지상을 회복하여 우리의 가정을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는 꿈을 같이 이루자.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행복 바이러스 효과

가끔씩 선교 현장들을 방문합니다. 새로운 나라에 갈 때에 전염병 예방 조치를 합니다. 수리남(Suriname)을 갈 때는 황열(Yellow fever) 예방 주사를 맞았고, 아이티 방문 때는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습니다. 사람과 동물 그리고 새로운 환경과의 접촉은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전염병은 무서운 것입니다. 전염병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염은 육체의 질병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감정과 정서도 전염병처럼 전이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서와 감정의 환경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움, 불만, 그리고 지루함 같은 악하고 부정적인 정서는 전염을 막아야 합니다. 반면에 행복,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는 전이를 촉진시키고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공연장에서 한 사람이 하품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하품이 전염됩니다. 하품이 좌우에서 터지면 지루함을 느끼고 공연이나 강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박수의 분위기도 전염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리처드만 교수팀은 청중의 박수에 숨어 있는 심리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동일한 학생이 같은 내용의 발표를 6개의 다른 그룹에서 하도록 연구팀은 지시했습니다. 각 그룹은 학생 13~2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발표가 끝났을 때 청중이 보인 반응은 매우 다양했다고 합니다.

리처드만 교수 팀의 연구에 의하면 청중의 박수와 환호는 발표 내용의 수준과 상관성이 약하다는 것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청중의 박수는 한두 명이 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중은 분위기를 주도하는 핵심 그룹의 박수에 동조해서 덩달아 박수를 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연이나 모임을 마친 후에 박수나 환호가 공연과 모임의 성과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일반 청중들은 박수가 많았던 공연은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내용과 상관없이 청중들이 내리는 정서적 결론은 박수와 환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연장에서 박수를 많이 자주 쳐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이웃 청중을 위해 그리고 공연팀을 위해!

이런 면에서 설교를 들으며 "아멘!"을 해야 합니다. 영적이고 성경적인 아멘의 유익은 너무 많지만 여기서는 아멘의 정서적인 효과만 설명합니다. "아멘!" 소리가 마음을 엮습니다. 알고 보면 '아멘!'을 외치는 사람이 아멘 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으로 제일 큰 수혜자입니다. 내가 "아멘!" 하면 나 자신이 가장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은혜의 정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은 정서적 공감과 지지로 은혜를 고평

시킵니다. 우리의 행복감도 전염됩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이웃은 행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캘리포니아대학교의 공동 연구팀이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프레이밍엄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팀이 발견한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끼리, 불행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행복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과 직접 친구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나 자신이 행복할 확률이 15퍼센트 상승합니다. 나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경우엔 나 자신이 행복할 확률이 10퍼센트 상승합니다.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나 자신이 행복할 확률이 6퍼센트 정도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흥미롭고 놀라운 것은 행복한 친구가 한 명 추가될 때마다 행복의 확률이 9퍼센트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고 원망하는 불행한 친구가 한 명 추가되면 행복의 확률이 약 7퍼센트 정도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더 행복해집니다. 행복 바이러스가 필요하신가요? 행복 바이러스를 나누는 사람이 되면 주변이 행복 바이러스로 가득할 것입니다.

정부학자금 보조(FAFSA) 신청 무료 공개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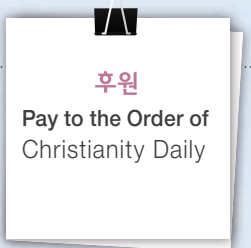
정부학자금 보조(FAFSA) 신청 무료 공개 강좌가 오는 6일(화) 그레이스미션대학(GMU)플러튼 본교에서 열린다. 정부학자금보조는 미 연방정부 교육국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정

책으로, 이날 강좌에서는 정부학자금보조 신청자격, 신청방법, 준비서류, 절차, 기간, 및 주의할 점, 질문과 답변 등 학자금 보조 신청에 대한 전문 설명회로 진행 될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개 강좌는 GMU 행정처장인 제임스 구 교수와 신디조 FSA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주소 :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문의: 714-525-0088(본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있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프로지의 특별한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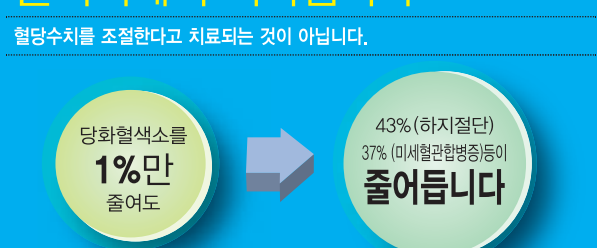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제1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에서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병원(연방 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Z 특허 물질인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213.434.1170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모든 가치, 목회와 교회에... 큰 돈 없어도 먹이시더라”

[인터뷰] 예수마을교회 정인호 목사

혹자는 ‘엘에이 한인타운에서 5년을 목회한 목사에게는 고개를 숙여야 하고, 10년을 목회했다면 절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인 타운 목회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말이다. 정인호牧사는 예수마을교회를 2004년 LA 한인타운에 개척해 올해로 15년째 목회하고 있다. 어려움과 아픔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이 땅에 꼭 있어야 할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교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의 행복한 목회를 들어본다.

정인호 목사(56)는 3대째 신앙으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성장했다. 한국의 모(母) 교회인 중곡감리교회 고등부 시절 참석하던 수련회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했다. “그때는 목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녁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제가 정말 대단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죄를 당신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 목사는 1980년 감리교 신학대 입학 후, 1987년에는 감리교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한국 만나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경험했고, 30대 중반이었던 1997년,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 풀러 신학대로 유학을 왔다. 학업과 동시에 UMC 소속 한인 연합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다. 이때 정 목사가 UMC에서 경험한 새로운 교회 구조는 예수마을교회 개척의 터전이 됐다.

회의하는 사람이 일하고, 일하는 사람이 회의한다

정 목사는 ‘회의는 목사와 장로가 하고 일은 집사가 하는 수직적 교회’가 아니라, ‘회의하는 사람이 일하고, 일하는 사람이 회의하는 유기적인 교회’를 꿈꾸며 예수마을교회를 시작했다. 예수마을교회를 초교파로 시작한 것도 직분제 때문에 교회가 적지 않은 불협화음을 내고 타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이었다. “직분제 없이 교단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적으로 설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진 마음이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이 땅에 꼭 있어야 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기 전 100일 동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교회라는 확답을 얻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목회의 길, 순종의 길

정 목사가 교회 개척을 위해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얻은 것은 ‘엘에이



예수마을교회 정인호 목사, 정원경 사모

한인 타운에서 개척하라’는 마음이 있었다. 교회 개척을 위해 몇 가정이 함께 기도하곤 했지만, 선뜻 한인타운 개척까지 동참하겠다는 가정은 없었다. 동역자 없는 교회 개척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인타운에 특별한 연고지나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기도 가운데 너무나도 확실하게 받은 응답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렇게 정 목사 한 가정으로 예수마을교회는 시작됐다. “제가 추진력이 강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한인타운 교회 개척이라고 할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신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많은 교회 가운데 플러스 원이 아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비전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치를 목회와 교회에 뒀다. 큰 돈은 없어도 먹이시더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붙들고 시작한 교회 개척은 기적의 연속이었다. 아니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 개척 초기 교회 렌트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 교회를 렌트할 수 있었지만, 24시간 언제라도 편하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성도들에게 마련해주고 싶었다. 그 마음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한인 타운 개척교회 목회자, 사모라고 하면 으레 ‘투잡’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목회에 전념하기로 하고 정 사모가 안정적으로 일하던 소셜워커 일도 그만뒀다. 그 옛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와 같이 정 목사 가정 역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당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교회 렌트비부터

가정에 필요한 재정까지 계산을 해보니... 계산이 안되더라고요(웃음). ‘하나님 일 하다가, 굶어 죽어야 하겠나’ 싶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교회 렌트비, 집 렌트비 안내서 쫓겨난 적 없고, 큰돈은 없어도 지금까지 먹이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나갈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한인타운 교회 개척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많은 목회자들이 공감하듯, 개척할 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때였다. 마치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로운 아파트를 찾아 떠나듯 교회를 너무나도 쉽게 떠났다. 떠나는데 익숙했던 성도들을 정 목사는 가슴으로 사랑했기에 걸음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가슴으로는 수없이 울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난 성도들 가운데는 정 목사가 맨투맨으로 성경공부를 하면서 신앙의 기초부터 가르친 사람들이 많아 더욱 마음 깊이 답을 수밖에 없었다. 허탈한 마음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른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서다.

“성도들이 나갈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어서가 아니라 교인들 간에 서로 문제가 생겨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 성도들이 나갈 때가 가장 허탈했습니다. 그 와중에 주신 은혜는 신앙이 자라지 않아 보였던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예배에는 눈물이 참 많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작은교회, 아이들 교육에 최우선

대다수의 한인 이민교회가 그렇듯 예수마을교회 개척에서도 사모의 역할

할은 빼놓을 수 없었다. 정원경 사모는 개척 초기부터 아이들의 신앙 양육을 도맡았다. 대형 교회에서 맛볼 수 있는 화려함은 없었지만 아이들은 따뜻한 사랑의 눈 맞춤에 반응했다. 교회에 오면 사모님부터 찾아 달려가기 일쑤였다.

“많은 분들이 큰 교회에 가면 아이들이 잘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데, 작은 교회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주일학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척교회였지만 아이들 교육을 최우선에 뒀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 없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아이들은 분명히 반응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척교회가 큰 교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교회 목회자가 그렇지만 사모가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았는데, 돌아볼 때 함께 사역에 열심히 동참해주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지요.”

교회의 존재 이유 = 한 영혼

예수마을교회는 한인타운에 세워져 타운에서만 15년을 있었지만 더 나은 환경을 찾아 타운을 벗어날 계획이 없다. 차가 없으면 점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에 있기보다는, 타운 한 가운데를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라도 교회로 들어와 기도하며 심을 얻는다면, 교회가 있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고 싶은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한 달 치 교회 렌트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소중한 값진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언제나 잊지 않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교회 작다고 하나님도 작은 것 아냐

예수마을교회에서는 수요일 오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엘에이 지역 목회자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 서로의 목회 경험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 교회에서 모임이 지속된 지 벌써 7년이 넘었다. 모임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교회의 외적 성장을 외칠 때, 교회의 ‘본질’과 ‘한 영혼’을 강조하는 정 목사의 목회관이 젊은 목회자들의 목마름을 채웠기 때문이다. 멀리서는 토론펜나 부에나파에서 올 정도로 목회자들에게 충전이 되는 시간이다.

“목회자들에게는 어디서든 쏘아내놓고 나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목회를 돌아보며 서로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모임의 정확한 명칭도, 임원도 없을 정도로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해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힘과 안식을 얻는 시간입니다. 누구라도 온다면 막지 않고, 회원을 만들거나 힘쓰지도 않습니다.”

정인호 목사는 한인타운의 이민교회 목회자들, 특별히 소위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영적 자급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소망한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초라하고 무기력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성스러운 종이기 때문이다. 또 교회가 작다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작은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민교회 목회 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더구나 목회자들 스스로 너무 주눅이 들어있습니다. 어려운 곳을 지켰으니 더 칭찬받을 만하지 않을까요? 목회의 목적을 돌아보면 좋겠습니까. 교회 규모가 작다고 하나님이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교회에서 만나는 동일한 하나님을 작은 교회에서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교회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지요.”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 해답은 나눔

“작은 교회지만 선교가 우리 교회의 DNA입니다. 교회 개척 후 시작한 멕시코 선교는 13년이 됐고, 멕시코 인디언들을 위한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 외에도 도미니카,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케냐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구제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 누리는 구원의 감격과 행복은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나눔을 통해 더 행복해지는 비결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김동욱 기자

2019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교육(CE) 목회학(M.Div), 상담학(BC), 선교학(BC),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aeu.edu

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l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척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6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화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 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SUMMER SPECIAL SALE



NEW 2019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1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4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ANTA FE SE 2.4L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6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HYUNDAI
1-888-644-7114

총신대학교 정상화 과제 '공의'와 '정의' 회복



총신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화 회장 김경일 목사

총신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화 회장 김경일 목사는 한국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과제로 '공의'와 '정의'의 회복을 꼽았다. 김 목사는 "총신대가 공의를 기반으로 교단의 패권주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꾼 양성을 위한 지도 방침을 따르고, 정의를 기초로 시대정신과 야합하거나 휩쓸려가서는 안된다"며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가 강 같이 흐르는 총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총신대학교는 한국 교회 장자교단인 합동의 신학교로, 한국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왔다"며 "총신대가 다시금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신학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신학과 영성의 보고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신임 이재서 총장이 취임 직후 학교 재정 정상화와 투명화를 위해 뼈를 깎는 인고의 헌신을 보이고 있다"며 "이재서 총장의 개혁 의지와 함께 학교가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인문학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한국 교회가 나아가갈 방향으로 '인문 철학을 통한 하나님의 선비 양성'을 제시했다.

김 목사는 "한국 교회 위기는 인문학의 결여로, 성령의 열매가 없는 목회자들의 말뿐인 외침으로 인해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게 됐다"고 지적하며 "하나님의 일꾼은 거룩한 선비와 같이 깊이 있는 학문과 목숨을 내어놓는 충절, 진리에 충만한 여유, 성령 충만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목사는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총신 남가주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오는 9월 14일(토) 오전 10시, 예수커뮤니티교회 (15246 Barnwall St. La Mirada, CA 90638)에서 열리는 한마음 동문 체육대회에 참석을 당부했다. 또 모교 발전을 위한 총신대학교 미주 후원 이사회 조직과 1,004구좌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김경일 목사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84회)에서 목회학 석사, 인디아나 그레이스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박사를 마쳤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20년 동안 사역했으며 가이오세계 선교회 총무로 7년, 북미주 선교사로 7년째 사역하고 있다. 현재 KWMC 부의장, 남가주 영성아카데미 원장, 남가주 총신 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김동욱 기자

평생의 목회 도구 TEE 지도자 세미나 8월 19일(월)부터 20일(화) 애너하임 아름다운교회



지난해 열렸던 미주 TEE 지도자 세미나

체계적인 성경공부와 지도자 훈련의 도구로 각광 받는 TEE(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지도자 세미나가 오는 19일(월)과 20일(화), 양일간 애너하임 소재 아름다운교회(담임 이봉하 목사)에서 개최된다.

KTEE 미니스트리(디렉터 한순진목사)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과 방법을 소개하고, 특히 지역 교회들의 가용학기 훈련사역을 돕기 위해 열린다.

한순진 목사는 "최근 이민자와 유학생 감소로 정체 추세에 있는 미주한인교회들에게 TEE와 같은 과정이 더욱 필요하다"며 "TEE 과정은 전도에서부터 새신자와 기초훈련, 사역자와 일꾼 심화과정, 그리고 목회자 단계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목사는 또 "미주 한인교회는 기존 신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도록 사역을 전개시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있다"며 "1960년 초반, 현대 선

교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친 랄프 윈터 박사가 제안하고 익스텐션(Extension)의 방법을 제공하므로 시작된 TEE의 방법과 운동은 이미 전세계 선교 현장과 지역 교회들로부터 충분한 임상을 통해 그 효과를 인정받고, 곳곳에 건강한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미 한국 내 3천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TEE 과정은, 미국 내에서도 필라 안디옥교회, 텍사스 비전선교회, 토렌스 조은교회, 산호세 새누리교회 등 4백여 교회가 TEE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미나 일정은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식사와 교재를 포함한 등록비는 100달러다. TEE의 학습교재들은 세미나를 수료한 지도자가 있는 익스텐션 센터 교회들에게만 공급되며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다.

문의: 714-350-4211, www.ktee.org 미주/해외 기사판 김동욱 기자

교회

<p>LA 지역</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p> <p>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스나무처럼 늘 푸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p> <p>김성식 담임목사</p>	<p>주일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아침예배 오전 9:00</p> <p>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323) 833-9090</p> <p>씨니킴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새벽예배) 오전 9:30 3부예배(자세대예배) 오전 11:30 *한양사역 각 예배 15분 전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p> <p>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확립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승천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교차로) T. (213)386-2233</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장태원 담임목사</p>
<p>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p> <p>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ntla.com</p> <p>최순환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함새벽 오전 6:20</p> <p>갈릴리션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p> <p>한천영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p> <p>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오후 10:30</p> <p>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강진웅 담임목사</p>	<p>주일 오후 2:00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서 위치)</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p> <p>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진유철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p> <p>성인 EM예배 오후 12:30 한양청년예배 오후 12:30 청양예배 주일오후 2: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p> <p>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323) 634-9191 / laopendoor.org</p> <p>박현성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p> <p>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김민수 담임목사</p>	<p>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p> <p>정병노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2:30</p> <p>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p> <p>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영양기성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p> <p>정세훈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부/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p> <p>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p> <p>정인호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15 중고등부 오전 10:00 유차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p> <p>EM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p> <p>예은장로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p> <p>곽건성 담임목사</p>	<p>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p> <p>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p> <p>박은종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p> <p>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u@hotmail.com</p> <p>김중호 담임목사</p>	<p>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켓에예배(분당) (소셜메시) 오전 11:00</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같은 믿,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정장수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신승훈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부/유아/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p> <p>주향 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p> <p>김신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p> <p>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p> <p>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이명수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차부/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p> <p>평화교회 사랑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jcc.church</p> <p>김은복 담임목사</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	--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한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어른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의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30(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3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목)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주일예배 오전 9:00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00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박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MP례목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8:30 9:00 9:30 10:00 10:30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11:30 12:00 12:30 1:00 1:30
주요성경집회 화 7:30 수요일예배 화 7:45
새벽기도회 월 5:30 / 토 5:00 (토) 5: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새벽기도회 월 5:30 / 토 5:00 (토) 5:30
(T. 818) 363-5887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불리서(Call),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명성교회 전경

명성교회 “후임목사 청빙, 세습 아닌 적법 절차” 공식 입장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라는 판결 결과를 받아든 명성교회에서, ‘장로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6일 발표했다.

명성교회 측은 “저희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한국교회와 교단의 모든 지도자와 동역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께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를 상대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에 대하여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지난 102, 103회기 재판국과 헌법위원회에서는 일관되게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고 판결이 연기·변복되는 등 판결의 모든 과정들은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명성교회는 이번 판결과 앞으로의 모든 절차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모든 과정 가

운데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기다리겠다”고 했다.

또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며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의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섬기는 ‘오직 주님’의 명성교회로 거듭나도록 깨어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명성교회 측은 “한국교회와 통합 교단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원로 분들과 지도자분들께 부탁드린다. 지난 39년을 한결같이 한국교회와 통합 교단을 섬겨온 명성교회가 앞으로도 그 사명을 잘 이어가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달라”며 “명성교회와 함께 인내하며 한결같이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칠년을 하루같이’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함께 나아가 달라”고 부탁했다.

이대웅 기자

한기총 전광훈 목사 두 번째 시국선언 “공산주의가 대한민국 장악했다” 8월 15일 광화문 광장 국민대회 참석 독려 나서



청와대 앞 광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들. ©이대웅 기자

‘문재인 하야 시국선언문’ 발표 이후 1천만 서명운동을 진행중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오는 8월 15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국민대회 참석을 독려하고 나섰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두번째 시국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단체 발송된 문자에서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이 발표한 문재인 하야 시국선언문을 적극 지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물고기가 물에서 살 수 있는 최소 산소 요구량이 4ppm이다. 그런데 인간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의 산소 요구량이 3.99ppm까지 하락해졌다”며 “이와 같은 썩은 문화의 물을 마신다면, 너 나할 것 없이 우리는 자멸할 수밖에 없다. 이 썩은 물의 시작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헤겔 철학의 타락으로부터 앙겔스로 넘어가고, 또 다시 칼 마르크스로 이어진 것이라고 한다”고 소개했다.

전 목사는 “칼 마르크스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완수했고,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해 유럽을 불태우고 내려오다 개신교 복음벨트와 건전한 가정, 교회, 국가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서독에 걸려 지지됐다”며 “이에 이탈리아 좌파 운동가인 그람시에 의해 문화 막시즘으로 옷을 갈아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은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프랑스에서 68 혁명을 일으켰다”며 “전 세계는 공산주의는 막아냈으나,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동성애와 이슬람, 차별금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는 “공산주의 혁명인 볼셰비키 혁명이 동쪽으로는 중국, 몽골, 동남아 일부와 북한을 불태우고, 북한에 와서 김일성 주체사상(주사파)의 옷으로 갈아입고 남한의 남로당 찌꺼기와 연합해 대한민국을 장악했다”며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목사는 “인류를 소멸케 하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과 주체사상의 썩은 물을 마셔 자멸하든, 아니면 전 국민이 분연히 일어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주체사상과 맞서 싸워 썩은 물을 쳐내고 한반도에서 터지는 새로운 생수를 마시든, 양자 간에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이와 같은 인류사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먼저 주사파를 통해 북한으로 가려는 문재인을 하야시키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과 주체사상의 썩은 물을 갈아치우고, 인류 앞에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는 역사적 책임을 대한민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한기총은 대한민국과 인류 앞에 새로운 생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대적 싸움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문재인 하야 1천만 서명운동과, 오는 8월 15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국민대회에 전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하나님과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선언문에는 기독교 대표로 전광훈 목사, 불교 대표 응천 스님, 천주교 대표 대수천 이계성 등의 이름이 들어갔다.

김진영 기자

美 마이크 펜스, 종교 지도자들 만나 中 종교자유 문제 논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백악관 제공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이 5일 남침례회 러셀 무어(Russell Moore) 목사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중국 내 모든 종교의 신자들을 상대로 한 박해에 관하여 미국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논의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과 행정 관료들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국제종교자유 라운드테이블(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oundtable)을 중심으로 모인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약 15명의 종교 지도자들과 약 1시간 정도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어 회장, 21월버포스 랜들 에버렛(Randel Everett) 회장,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차이나에이드의 밥 푸(Bob Fu) 회장, 또 다른 박해감시단체인 미국 오픈도어즈 데이비드 커리(David Curry) 회장, 국제종교자유라운드테이블의 그레 미첼(Greg Mitchell) 공동회장, 미 국무부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국제종교자유대사와 국가안정보장회의(NSC) 회원들이 참석했다.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자유 문제를 다뤄온 많은 지도자들이 지난 6년 동안 중국 내의 종교자유 침해 건수가 충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종교적 배경은 달랐지만, 우리는 현재 중국에서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과 관련해 깊이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커리 회장은 미 행정부가 20년 동안 중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 왔으며 중국을 상대로 종교적 자유침해와 관련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미 행정부는 중국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전략을 세운 적이 없다”면서 “미 행정부가 이를 나라별 특정한 관심사로 인식했으나 여기에서 더욱 나아가지는 않았다. 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재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부가 제재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밥 푸 회장은 역시 펜스 부통령에게 감사를 전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무역과 종교자유와 관련해 당신(마이크 펜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정권’을 상대로 보여준 결단과 용기는 비할 데가 없다”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에 나서주어서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다.

강혜진 기자

美 조지아주 낙태율, 지난 25년 동안 약 20% 하락

“미국의 더 많은 주에서 낙태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 5월, 조지아주 브라이언 켈프 주지사가 심장박동법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미국 조지아주의 낙태율이 지난 25년 동안 약 20% 가까이 하락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tlanta Journal Constitution, AJC)을 인용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현지 매체인 AJC의 마야 T. 프라부(Maya T. Prabhu) 기사는 최근 조지아주 공중보건부의 통계자료를 조사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1994년에는 약 33,500건의 낙태가 진행됐으며, 10세부터 55세 사이의 여성 1,000명 당 낙태율은 13.7%였다. 그러나 2017년 낙태 건수는 27,453건으로 1,000명 당 낙태율은 8.3%로 줄어 들었다.

이같은 낙태율의 하락세는 조지아주의 인구가 지난 1994년 약 700만 명에서 2014년 1,040만 명까지 증가한 가운데 일어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낙태권을 주장하는 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Guttman Institute, 이하 연구소) 역시 최근 조지아주의 낙태율이 하락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조지아주의 낙태율은 약 7% 하락했다. 또 임신이 가능한 여성 1,000명당 낙태율은

16.8%에서 15.7%로 줄어 들었다. 조지아주의 낙태 건수는 미국 전체 낙태 건수의 3.6%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하락세와 관련해 연구소는 “미국의 더 많은 주에서 낙태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미국의 각 주에서 새롭게 낙태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 338개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낙태 반대단체인 전미생명권협회(National Right to Life)의 데이브 앤드루스코(Dave Andrusko)는 “조지아주 낙태 반대운동가들에게 축하를 전한다! 저널컨스티튜션이 낙태를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매우 놀라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조지아주 브라이언 켈프(Brian Kemp) 주지사는 강력한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HB 481)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감별된 이후 의사의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통 임신 6주 차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을 초음파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6주 이후의 낙태 수술은 불법이 된다.

강혜진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p>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치부 예배 오전 8:40</p> <p>이호민 담임목사</p> <p>가디나선교교회</p> <p>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p> <p>신태섭 담임목사</p> <p>가디나장로교회</p> <p>예수의 온전한 재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p> <p>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p> <p>이석부 담임목사</p> <p>나성금란교회</p> <p>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p> <p>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p> <p>김준식 담임목사</p> <p>남가주shalom교회</p> <p>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p> <p>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p>
<p>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권영국 담임목사</p> <p>대흥장로교회</p> <p>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p> <p>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p>	<p>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p> <p>서보천 담임목사</p> <p>둘로스교회</p> <p>영혼 구원하여 제자하는 교회</p> <p>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p>
<p>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p> <p>강신권 담임목사</p> <p>세계성경장로교회</p> <p>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p> <p>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p>	<p>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p> <p>김경환 담임목사</p> <p>은혜로교회</p> <p>새일을 행할지 하나님을 기대하라</p> <p>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p>
<p>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월일예배 오후 1:30 이름답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롬 10:15)</p> <p>이호우 담임목사</p> <p>좋은소식교회</p> <p>Good News Church</p> <p>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p>	<p>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담회 금 오후 7:20</p> <p>박성규 담임목사</p> <p>주님세운교회</p> <p>처음 사람으로 섬기는 교회</p> <p>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p>
<p>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p> <p>이상훈 담임목사</p> <p>주비전교회</p> <p>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p> <p>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p>	<p>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p> <p>이종용 담임목사</p> <p>코너스톤교회</p> <p>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p> <p>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p>
<p>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p> <p>고창현 담임목사</p> <p>토렌스제일장로교회</p> <p>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p> <p>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M 예배 오전 9:45 T.O.T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분당</p> <p>김우준 담임목사</p> <p>토렌스 조은교회</p> <p>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p> <p>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p>
<p>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p> <p>윤 목 담임목사</p> <p>한인소망교회</p> <p>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p> <p>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 (310)715-9902</p>	<p>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p> <p>김철민 장로</p> <p>CMF선교회</p> <p>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p> <p>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p>

O.C, 엘바인 지역

<p>성경독무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p> <p>이명이 담임목사</p> <p>UBM교회</p> <p>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p> <p>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평일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이침전부 오전 9:30, 11:30 한아침(평일)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p> <p>구봉주 담임목사</p> <p>감사한인교회</p> <p>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p> <p>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p>
<p>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성경기도회 (월)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화교(화)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p> <p>민경엽 담임목사</p> <p>나침반교회</p> <p>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p> <p>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p>	<p>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p> <p>오병의 담임목사</p> <p>남가주 벨엘 교회</p> <p>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p> <p>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a@gmail.com</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I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p> <p>백정우 담임목사</p> <p>남가주동신교회</p> <p>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p> <p>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p>	<p>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p> <p>이 일 담임목사</p> <p>남가주순복음교회</p> <p>예수 사랑으로 열방을 섬기는 복음공동체. ALL IN JESUS 복수제 20년 기념 기념식</p> <p>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p>
<p>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I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p> <p>김성원 담임목사</p> <p>남가주새소망교회</p> <p>예배 성령 성모로 세례 받아 함께 갈라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p> <p>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p>	<p>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p> <p>왕상윤 담임목사</p> <p>NEXT 사랑의교회</p> <p>하나님이 주인하신 교회</p> <p>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p>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목요저녁예배 :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아침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상사 오전 9:30(토)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복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짐새를 새우고 복음으로 다짐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렌지카운터하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하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머무릿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7: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2부예배 (영아)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5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8:00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 92886
T. (714)646-9259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8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꿈만 같았던 지난 9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최성은 목사 이임 및 파송 감사예배



이임 및 파송 감사예배에서 고별설교를 전하는 최성은 목사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지난 4일, 최성은 목사 이임 및 파송 감사예배를 드리고, 최 목사를 한국 지구촌교회와 한국교회로 파송했다.

이날 예배에서 최성은 목사는 “부르심(눅 5:1-11)”이라는 제목으로 고별 설교를 전하고 “구원의 부르심에 멈추지 말고 사역과 영원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며 성도들에게 복음 사역에 매진할 것을 권면했다.

최 목사는 이어 “타코마제일침례교회에서 사역한 지난 9년은 꿈만 같았던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지난 9년 동안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사역에 함께 해준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영상으로 축사한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는 “담임목사를 떠나 보내는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안디옥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했던 것처럼, 최성은 목사를 한국으로 파송하는 타코마제일침례교회와 성도들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한국 침례신학대학 김선배 총장은 “한국으로 최성은 목사를 파송한 타코마

제일침례교회에 감사드린다”며 “최 목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계속된 영상 축사에서 세계 최대교단인 남침례교 해외선교부(IMB) 총재인 폴 칫우드(Paul Chitwood)와 서북침례교(Northwest Baptist Convention) 대표 랜디 아담스(Randy Adams) 목사도 최성은 목사를 떠나 보낼을 아쉬워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최성은 목사와 타코마제일침례교회에 넘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온 성도의 마음을 모아 준비한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파송감사예배 마지막은 모든 성도들이 한국으로 가는 최성은 목사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파송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편 2011년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제3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최성은 목사는 약 9년 동안 사역했으며, 지난 4월 한국의 지구촌교회가 최성은 목사의 청빙을 결정하자,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온 성도는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최성은 목사를 한국에 파송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성은 목사는 9월부터 지구촌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美 기독교 단체, ‘홀푸드’ 불매운동...

“드래그퀸 행사 후원”

미국 기독교 단체인 ‘원밀리언맘’(One Million Mom, OMM)이 유명 식품품 매장인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LGBT를 홍보하는 단체들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잘 알려진 원밀리언맘은 최근 미국에서 가장 큰 식품품 매장인 홀푸드마켓을 상대로 불매운동에 나섰다.

이같은 불매운동은 최근 애틀랜타시에서 진행되고 케이샤 랜스 보텀스(Keisha Lance Bottoms) 시장이 참석했던 ‘드래그퀸 스토리 아우어’(Drag Queen Story Hour) 행사를 홀푸드마켓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드래그퀸 행사는 여성의 옷을 입은 남성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행사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7월 시애틀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한 남성이 젓가슴이 달린 흥부 봉대를 하고 등장하거나, 또 다른 남성이 퍼포먼스를 벌이는 도중 옷을 벗거나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원밀리언맘 캠페인 측은 “한 때 깨끗한 유기농 음식을 선전했던 홀푸드마켓은 미국의 아이들을 드래그퀸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드래그퀸 스토리 아우어’를 후원하면서 아이들에게 트랜스젠더와 동성애를 세뇌시키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LGBTQ의 삶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애틀랜타 시장은 풀톤카운티 도서관(Fulton County Li-



홀푸드 마켓 로고

brary)에서 드래그퀸으로 알려진 미스테라코타 슈가베이커와 행사를 가지려고 했으나 취소되자 그를 시청으로 초대해 청중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원밀리언맘은 “이같은 행동은 민주당 소속 시장이 진보주의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홀푸드마켓 불매운동과 관련된 청원을 시작했고, 이를 동안 8,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원밀리언맘이 동성애 아젠다를 반대하여 불매운동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달에는 미묘하지만 알아볼 수 있는 동성애 부부를 등장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된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영화 ‘토이 스토리 4’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우리 교회당 서편에는 로스 엔젤 레스의 명소인 그리피스 파크(Griffith Park)가 있습니다. 그 산 능선에 올라서 북쪽을 보면, 글렌데일을 병풍처럼 싸고 있는 버두고 산맥(Verdugo Mountains)이 있고, 또 그 뒤 라크레센타 계곡의 북쪽으로 멀리 루켄스 산(Mt. Lukens)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는 루켄스 능선은 건기에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봉우리를 오르려면 2시간 30분을 계속 걸어야 합니다. 산길은 수십 개의 지그재그길(switchbacks)입니다.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단순하게 보이는 뒷산 능선이 실제로 깊은 계곡과 수많은 봉우리와 변화무쌍한 산길을 가진 것처럼, 단순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도 마치 겹쳐진 산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을 단순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해석의 장치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원근법”(foreshortening)을 사용하여 앞으로 올 다중적인 예언의 성취를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는 한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구절로 역사속의 종말을 관통하는 통시성(diachrony)으로 예언의 해석방법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를 그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임할 세상의 파국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성전의 파괴로 시작되는 일련의 사건을 구약의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단 9:27, 11:31, 12:11)이라는 말로 종말의 증거를 삼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예언은 그러므로 중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은 이미 과거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등장으로 성취된 일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적 구절은 기원전 167년 안티오쿠스 4세라는 셀류시드의 왕이 제우스 신상과 자신의 신상을 성전 안에 세우고 돼지와 여타 부정한 짐승으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가까운 미래의 성전 파괴를 “둘 하나 위에 둘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는 성전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서기 70년의 예루살렘의 붕괴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요세푸스는 안티오쿠스 시대의 역사기록과 거의 동일한 필치로 예루살렘성의 붕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던 제자 공동체는 유대-로마 전쟁이 시작되던 해인 서기 66년에 벨라(Pella)로 이주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셋째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세계적인 무서운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0세기를 살던 인류는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무섭고 끔찍한 전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 직전에 전례가 없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있을 전무후무한 예루살렘의 재앙과 전쟁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언과 목사가 풀려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단초들이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마 24:15). 악으로부터 피하여야 합니다(마 24:16). 그리고 삼가서 미혹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마 24:23, 26). 고개를 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난 주간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안성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일본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이지만, 복음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가장 불쌍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신앙의 불모지라고 하는 캄보디아 같은 나라도 기독교 인구가 1.2%인데, 현재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0.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열악한 선교지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일본 선교의 가장 중요한 통로로 쓰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일본에 계신 한인 선교사님들이지요.

번 일본 방문은 일본 노회 목사후보생들의 시험 감독과 면접을 치르기 위하여 방문한 것입니다. 목사고시 면접은 항상 간절한 신앙고백과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올해 고시 면접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데, 일본 노회 소속의 한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와서 KOSTA(국제 복음주의 학생 연합회) 집회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일본 선교에 헌신하셨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파송받아 가서서, 2-3명의 개척 멤버와 교회를 개척하고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 건축이 완공

되어 가는 중에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면접관으로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왜,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입니다.

그 전도사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본을 사랑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 마음에 이 일본을 위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답하시는 전도사님도 면접관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전도사님의 진심이 마음 깊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목사 안수받을 때 그때처럼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번 목사고시 감독관으로 일정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뉴스와 여러 경로를 통해 알고 계시듯, 최근 한 일 관계가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인 선교사님들도 조국인 대한민국을 응원하면서도, ‘행여 이 일로 선교 후원이 끊어지지 않을까?’ 또 적대감정이 커져서 한인들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을까 많은 염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조국을 위해, 또 일본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광고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기에 자주 말씀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큰 호텔 체인의 주인으로 돈이 많은 아버지는 늘 작은 방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사는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 돈으로 제일 좋은방에서 별 걱정도 없이 즐기는 삶을 삽니다. 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세상에서 비싸고 멋진 차를 몰아도 총을 든 강도와 함께 한다면 평범한 차를 몰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보다 어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망친 사람들 대부분은 좋은 환경과 조건만을 보고는 잘못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뒷에 걸리고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만한 인생은 자기가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 것이 편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요셉은 부잣집 귀공자로 있을 때보다 감옥이라는 좋지 못한 환경과 편하지 않은 조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니가 형통한 자가 되고 이웃과 민족을 살리는 보람 있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난 희생과 헌신을 쏟아 부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한다면 믿음의 헌신과 희생 생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문학전집 3권에 있는 ‘조끼’ 라는 제목의 글의 내용입니다. 한 남자가 장사를 해서 제일가는 부자가 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집에는 일꾼이 수백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2만 루블이라는 큰돈이 없어졌습니다. 나이 든 일꾼들이 도둑놈을 찾아내었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자고 합니다. 주인은 돈을 훔친 자가 ‘이반 페트로프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반 페트로프라면 용서해주게!’라고 말합니다. 다들 더 큰 도둑이 또 생길 수 있기에 안 된다 고말렸지만, 주인이 말합니다. ‘이반 페트로프는 내가 장사를 시작할 때 나를 도운 친구였네. 내가 결혼 할

때 내겐 아무것도 걸칠 것이 없었는데 그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조끼’를 벗어 내게 입으라고 주었네..’ 그렇게 해서 이반 페트로프는 주인의 응시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이런 유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부자 랍비의 집에 어떤 거지가 찾아와 기둥에 등을 비비대며 굶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자 랍비는 그를 불쌍히 여겨 데려다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이튿날이 이야기를 들은 한 거지부부가 어제의 그 거지처럼 부자 랍비의 집대문 기둥에 등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자 랍비가 그들을 잡아들여 실컷 매를 때리고 쫓아내었습니다. 거지 부부가 매를 맞고 쫓겨나가며 불공평하다고 소리를 치니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제의 거지는 혼자이니 기둥에 비비서 굶을 수 밖에 없었지만 너희는 둘이니 서로 굶어줄수 있고 그래야 하지 않느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편한 신앙생활만 추구하다가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드릴 줄 모르는 신앙이 되었고 진짜 중요한 복음잃어버려가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임 목사 청빙

아리조나 피닉스 동쪽에 위치한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에서는 20년째 담임 목회를 해오신 조정기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후임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자격

1. 정규 신학 대학, 또는 대학원이상 졸업하신 분
2.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으신 분
3. 미국 체류에 법적문제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1. 이력서
2. 목사 안수 증명서
3.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4. 자기 소개서
5. 최근 설교 CD
6. 추천서

■ 제출 방법

1. 청빙 위원회 이메일 (jungeun.park1014@gmail.com)
2. 우편 (430 N. Lewis St., Mesa AZ 85201)

■ 제출기한 : 2019년 12월 31일(화)

■ 연락 : T.(480)435-0998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전도사 청빙

뉴저지 은혜와 사랑교회 (미국장로교, 담임:소기범 목사)에서 아동부 전도사님을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 M.Div, 학위 소지 혹은 재학 중인 분
- 급 여 : 상의 후 결정
- 사역내용 : 아동부 목회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보내실곳 : jcworld21@hotmail.com
- 문의 : 목회 부장 T.(201)522-3011



"영성이 깊은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

55 Magnolia Avenue Tenafly, NJ 07670

Tel:(201)567-3535

www.gracelovechurch.org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숏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562) 383-3566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영타슈
 주일제전
 159-271
 교미보고
 머그컵&텀블러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한인타운 한의원

크기 **금매 1,150 sf**

문의 : (213)381-7575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34년만 사그럼영사 영재주사면 안배드크 담배입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기독교일보와 함께하는 여행 **성도간의 교제, 단합, 힐링을 위한 시간!**

교회 맞춤형 힐링 여행

교회 상황에 맞추어 원하시는 날짜, 인원에게 맞게 여행 플랜을 드립니다.

강추!

성도간의 교제의 시간으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운전하기 어려운 시니어들을 위한 편안한 여행이었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알찬 여행이었습니다.
 기독교일보 신문사가 주최하는 여행이라 믿음이 가고 안전한 여행이었습니다.
 - 여행 다녀오신 분들의 소감

\$99 8월 **역사 속 추억 여행**
 유람선 포함 8월3일(토)당일
에로우헤드 호수와 맥도날드 시작 점을 찾아
 L.A.-맥도널드 역사 박물관-러시비페 -에로우헤드 호수 유람선-L.A.

Queen Tour Boat

\$190 노동절 연휴 특선
 유리 바닥 보트, 섬드라이브 포함
카타리나 섬 추억 여행
 9월 2일 (월)당일

CATALINA EXPRESS

\$99 9월 **대추나무 가을 여행**
 페달 보트 포함
 9월 21일(토)당일
실버우드 레이크 보트타기와 대추 따라가기
 실버우드 레이크 [페달 보트 타기]-대추농장[BBQ 파티] & [대추 따기]

추억 만들기 단풍여행 10월
비숍 단풍 \$199
 10월 10일(목)
 1박2일 **Lake Sabrina Mammoth Lakes (숙박) June Lake**

천 오백만불 보험가입

GOLD COAST TOURS

“교회학교 부흥? 바보같이 복음만 전했다”

전하리교회 조한권 목사, ‘바보목회’ 수련회서 강조

전하리교회(담임 조한권 목사)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성전에서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바보목회 수련회’를 개최했다. 원래 매년 교인들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올해 처음으로 국내 30개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열었다.

‘바보목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전하리교회 목회를 한 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바보’다. 이는 이 교회 담임인 조한권 목사의 고백이기도 하다. 조 목사는 이날 수련회 강사로 나서 “저는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조 목사는 “왜냐하면 죽을병에 걸렸어서 이 약 저 약을 쓰다 보니 기억력을 다 잃어버렸다. 기억력이 없으니 원고를 보지 않고는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말짱히 주일에 설교를 하는 건 특별한 은혜”라고 했다.

그는 “리더십이 있는 것도,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다. 인격도 내세울 게 없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른 사역자들도 다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눈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했다.

조 목사의 말처럼 전하리교회 교회학교는 부흥을 경험했다. 이번 수련회도 교회의 미래인 다음세대

선교가 위기를 맞고 있는 시대에, 전하리교회 교회학교에 맞힌 열매들을 한국교회와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조 목사는 “목회를 많이 배워야 하고 리더십도 있어야 하며, 설교역시 탁월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 쓰는 사람들 중에는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고전 1:26~28).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자들, 바보 같은 자들을 택하셨다”고 했다.

그는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전 1:29~31)고 하셨다.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왔다. ‘아, 내가 바보 같은 것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쓰려고 바보같이 만드신 거구나!’ 목회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조 목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바보같이 순종해야 한다”며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바보처럼 순종해야 그 목자가 목회를 되게 해준다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했다.

그는 “저같이 쓰러진 사람, 소망 없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다. 나는 바보이고 바보 목사일 수밖에 없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목회를 잘 할



전하리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찬양하고 있다. ©전하리교회



조한권 목사 ©전하리교회



수련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하리교회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부족해도 된다. 오히려 바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일 수 있

다. 저 같은 목사도 은혜로 하나님이 목회를 하게 하셨다”며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여러분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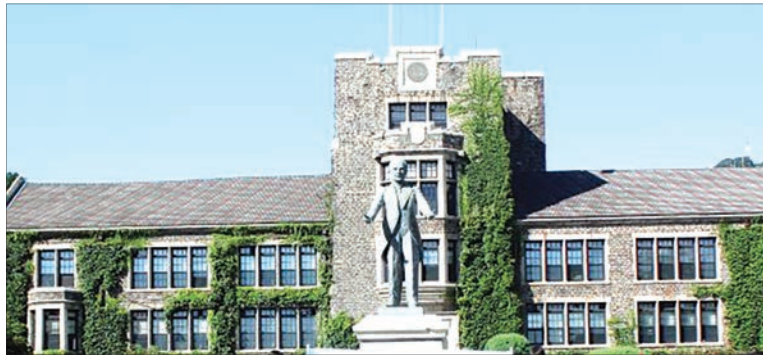
한편, 조 목사는 다음세대 선교와 관련해 “복음이 능력이기에 우

리 교회에서는 제가 장년부 예배 때 전한 복음을 모든 교육부서가 똑같이 전하게 했다”며 “아이들도 1년, 2년, 3년 계속해 예수, 십자가, 보혈, 성령, 부활에 대해 들었다. 바보같이 복음만 전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젠더? 성평등?... 연세대학교 ‘인권 강좌’ 개설 논란

내년부터 신입생 필수... “기독교 정신 훼손 없기를”



연세대 본관 앞에 세워진故 언더우드 선교사의 동상

·이벤트는 무슨 차로 할까? ·요즘 스포츠에 있는 차가 무얼까?
·자동차 구입할까? ·리스 할까?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연세대학교(총장 김용학)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국내 최초로 전체 학부 신입생 대상 온라인 인권 강좌를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연세대는 “강좌 주제는 역사, 사회, 노동, 아동, 장애, 난민, 성, 환경, 생명, 의료, 사회 정의 및 교육 등”이라며 “국내외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들을 총 13주에 걸쳐 다룬다”고 설명했다.

‘인권과 연세정신’이라는 이름의 이 강좌에는 이 대학 14개 학과 15명의 전임 교수들이 ‘인권과 젠더(성평등)’, ‘인권과 난민’, ‘인권과 사회정의(사회화)’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고 연세대는 덧붙였다.

학교 측에 따르면 강좌는 올해 9월부터 시범운영되다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들이 졸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양기초 정규과목으로 편성된다.

교수학습혁신센터 김은정 센터장은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며 자신을 성찰할 뿐 아니라, 인권과 평등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지식인의 책임을 배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강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칫 급진 페미니즘이나 이슬람 난민 문제 등에 있어 편향된 관점을 전달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연세대의 인권 강좌에 대해 “다 좋은데 젠더와 난민이 문제다. 젠더가 아니라 양성평등을 가르쳐야 하고, 난민은 반드시 무슬림 난민과 비무슬림 난민을 구

분해서 가르쳐야 한다”며 “언더우드가 세운 기독교 정신을 더럽히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독교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은 ‘젠더’(gender)는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을 뜻하는 ‘섹스’(sex)와 달리,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사회적 성’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평등 역시 ‘양성평등’과는 다른 개념으로, 동성애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운영위원장 김원평 교수(부산대)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됐고,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세대가 논란이 많은 인권 문제, 특히 젠더와 성평등에 대해 가르친다는 것에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모 집 과 정

학사과정

- 신학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석사과정

- 교역학석사
- 신학석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석사
- 기독교교육학석사

박사과정

- 목회학박사
- 신학박사
- 선교학박사
- 기독교상담학철학박사
- 기독교교육철학박사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나실인의 사명 2

사사기 16:15-30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삼손은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면서 교만해지고 경거망동(輕舉妄動)하고 타락하는 폐단들을 많이 봅니다. 삼손이 세상에 생겨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용도 사명을 목적으로 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실을 잊어먹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실인이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나게 하시기 전에 그 부모에게 천사를 보내 예언하시기를 아이를 잉태한 후에는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므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온 나실인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혼부터 잘못 시작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같은 나실인과 결혼해야 함에도 잘못된 생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몸으로는 부부였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원수지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여자의 배신으로 인하여 삼손은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 후 그 장인마저도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중 배신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 여우 삼백 마리를 잡아 꼬리를 돌씩 묶어 햇불을 쫓아 추수 직전의 곡식 밭으로 몰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장정 일천 명을 쳐 죽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임에도 삼손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 한 기생에게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구별되어 나게 하시고 나실인으로 택하셔서 무한한 신의 능력을 체험시켜 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하는 사명을 계속해서 독려하시고 재촉하셨지만 삼손은 그것은 뒷전이고 육신의 정욕을 좇아 기생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삼손이 기생에게 들어갔다는 소

문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했습니다.

잠언 5:20에 “내 아들이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했습니다. 이것은 선민사상으로 길들여진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해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고 기생과 합할 수 없음을 밝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묵도하면서도 그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내고자 하는 생각은 커녕 무사안일주의로 육신의 정욕에 치우쳐 방탕하고 타락하는 일에 정신이 홀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이 범죄 하는 장소에서도 그의 생명이 위태로움을 염려하시어 하나님이 능력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밖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고, 매복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삼손은 지난번에도 여자로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이번에도 음녀로 인해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사사기 16:1에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했습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은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가서 “삼손을 꺾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일천일백을 네게 주리라(삿 6:5)”고 꾀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라는 삼손에게서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큰 돌로 사람 모양으로 깎아 만든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던 그들은 삼손이 하나님의 나실인이라 것을 알기에 더욱 없애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들릴라라는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고 삼손에게 노골적으로 말하며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 했지만, 삼손은 여러 차례 거짓으로 말하여 곤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

번 삼손을 잡을 수 없었던 들릴라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즐겼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음이 변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삼손이 변뇌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나실인이고 자신의 사명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것이라는 생각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삼손은 “내 머리에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고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마치 그의 힘의 근원인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머리털 자체는 하나님과 그의 부모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표입니다. 삼손은 이 언약의 상징을 누설하고 파기함으로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신 것입니다.

머리털을 밀린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두 눈을 뽑히게 되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다곤 신이 자신들의 원수인 삼손을 붙잡을 수 있게 했다고 즐거워하며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신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자신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

자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처신을 잘못했을 때 그 사람 신세가 불행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를 세워 기대 가운데 사용하시려던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 되고 마귀의 노리개 감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재주를 보기 위해 삼천 명가량이 모여 있는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 서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 하옵소서 하나님이며 구하옵나니 이번 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만약 그가 사명자의 투철한 의식이 있었다면 자신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비참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대 걸고 맡기신 나실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더 큰 행패로 시달림 받은 것을 생각하고 힘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도 죽을지도 모를 일에 힘을 달라고 하는 삼손을 좋게 여기셨고 그가 마지막에 사명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서서히 해방의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 / 동부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토요일 서부오후 6시 / 동부오후 9시		AM1310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이은태 목사를 붙잡아 준 인생 말씀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이른 비의 기적 I 늦은 비의 기적 II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끼리를 걱정했던 이은태 목사가 수백억에 달하는 세 개의 빌딩과 영어 학교,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 대형 쇼핑몰과 크리스천 캠프장을 운영하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기적!

위클리프를 비롯한 17개 선교 기관들을 섬기고, MEC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지난 20여 년간 2,300여 명의 유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 청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쇠퇴하고 있는 뉴질랜드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생생히 증거한다.



이은태 저음 / 1권 232면 / 13,000원

이은태 저음 / 2권 252면 / 13,000원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Dietary Supplement

햄프함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함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변제거의 특효!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변 제거

신이 내린 항암식품!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햄프함초환 1,800 환 \$250 +Tax

\$19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함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2 장에 좋다

함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심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4 당뇨에 좋다

함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간에 좋다

함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항암에 좋다

함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함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7 식이섬유가 많다

함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 칼슘이 많다

함초에는 우유의 2배가 넘는 양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하라산장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의 보고서 '놀라운 함초의 효능'에 항염증, 항균, 갑상선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바하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정제염 - 꽃소금, 맛소금)
나트륨 Na : Cl	나트륨 (Na)
칼륨 K : Cl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슘 Ca : Cl	
마그네슘 Mg : Cl	

99.70% 미네랄 소금
최상급 천일염, NO 중금속 NO 간수



515g
바하 천일염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30 +Tax**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바하함초분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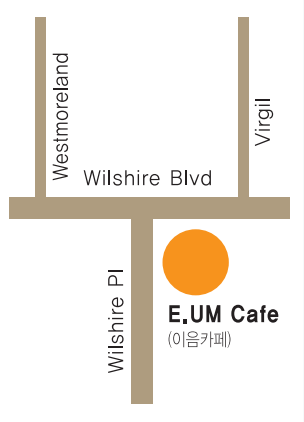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함초! 바하함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염미네랄 함유!!!



150g
바하함초분말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30 +Tax**

*E,UM Cafe (이음카페)
☎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함초분말 도,소매 판매합니다.



CBD BAJA HAMCHO Inc.

☎ (213)434-1170, (213)605-2772

www.hempbiousa.com hempbiousa@gmail.com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기독교일보와 함께 하는 품의 성지순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1박 12일

예루살렘 단기선교 팀원 모집

믿을 수 있는 현지선교사의 인솔!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하면서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일시	2019년 9월 30일(월)~10월 11일(금) 11박 12일
대상	목회자 및 평신도(장로, 권사, 집사, 일반성도 등)
접수마감	2019년 8월 10일(토) 접수시 \$1,000 디파짓
모집인원	40명 인솔 : 현지선교사 (GMS 소속, 강태윤 선교사)
회비	\$2,700 (비행기표, 숙식 포함) LA 출발 가격, 타주 출발시 항공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선교일정 및 문의사항은 기독교일보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주관 : 기독교일보(사업본부) T.(213)739-0403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 BIZPOST GROUP, 한우리여행사



Deep-Rooted Spiritual Conference

2019 뿌리 깊은 영성 세미나

날짜: 9월 20-21일 • 장소: 새생명비전교회



Gary Thomas
베스트셀러 영성작가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강준민
새생명비전교회 담임



John Coe
탈봇신학교 영성신학 교수



Howard Baker
덴버신학교 영성신학 교수



Siang Yang Tan
풀러신학교 심리학 교수



Benjamin Shin
탈봇신학교 교수

- 등록: www.ispiritualconference.com
- 주최: 새생명비전교회 (www.nlvc.org)
- 후원: 미주 두란도서원, 미주 CGNTV



조봉희
목동 지구촌교회 담임



강찬기
한국 레노바레 대표



Stephen Morrison
미우주항공연구소 연구원